

## [보도자료] 쿠팡, 11월 ‘맘앤베이비위크’ 진행

2019. 11. 3.



- 기저귀, 유모차, 임부복 등 15개 카테고리별 할인상품을 한자리에
- 3차에 걸쳐 최대 50% 할인 '한정특가 상품' 채워
- 앞으로 매달 1일 베이비 프로모션 행사 진행

2019. 11. 3. 서울— 쿠팡은 11월 ‘맘앤베이비위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7일까지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출산/ 유아 관련 상품들을 모았다. 하گی스, 애플루트, 필립스 아벤트 등 육아용품 탑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했다. 3000여 종의 상품을 ▲기저귀/물티슈 ▲분유/아이식품 ▲유모차/웨건 ▲임부복 등 총 15개 카테고리로 구성해 쇼핑 편의를 높였다. 카테고리별로 할인상품들을 모아 쉽고 빠르게 구매 가능하다.

또, 행사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27개 상품을 선보이는 ‘한정특가 상품’ 이벤트에서는 ‘하گی스 밤부 팬티형’ ‘베베숲 시그니처 슬림 캡 아기물티슈’ ‘페도라 주니어 카시트’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7일까지 ‘아가드 마그네토 안전문’ ‘하گی스 컴포트 팬티형’ ‘릴리우 퓨어핑크 유아물티슈’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한편 베이비 프로모션 행사는 지난 10월 진행 당시 뜨거운 성원으로 앞으로 매달 1일 정기적으로 진행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아이가 착용하기에 편리한 ‘베어파우 도티 유아부츠’로 쿠팡가 3만원대이다. 이 밖에도 ‘보솜이 팬티형 대형’은 3만원대, ‘홀레 유기농 조제식분유’는 4개입 5만 7000원대이다.

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쿠팡은 ‘맘앤베이비위크’로 외출이 어려운 예비, 육아맘 고객들에게 로켓배송을 통해 보다 좋은 고객 경험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춘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